

여야, '대화합' 뒷전 정쟁만 격화

盧 전 대통령 서거 한달 앞두고 정국 시계 제로 6월 임시국회 공전·미디어법 처리 책임 공방만

오는 21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 달이 되지만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정국은 시계 제로 상태다. 여권은 아직도 해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야당은 정쟁에만 매몰돼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노 전 대통령의 '대화합' 유지는 여야의 정쟁과 진보·보수의 대립 속에 내팽개쳐진 상태다.

18일에도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한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접근을 전혀 보지 못했다.

더욱이 전남 미디어법의 여론수렴을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여론조사 실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로 파국으로 치달았으며 이날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 공방만 벌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로 미디어법이 넘어온 만큼 여야간 논의를 재개해 약속대로 6월 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에서 "전제 조건인 여론수렴이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돼 (여야 합의가) 전면무효,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측 미디어발전위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측 위

원들이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 사실 왜곡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 측 단독 여론조사는 미디어위의 공식 활동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 측 위원들의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한 강상현 미디어위 공동위원장은 "한나라당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 머리를 맞대고 활동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별도의 여론조사를 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마련,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예정이나 여야 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국회법상 자동 개최되는 6월 국회의 개회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야당도 문제지만 야당에 어떤 등원 명분도 주지 않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거대 여당의 무성의와 무소신은 더욱 큰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5개의 사항 중 1~2개는 여야간 절충이 가능한데도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야당에 서거 정국을 이용하느라 국민은 인중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실시 등을 통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야당도 문제지만 야당에 어떤 등원 명분도 주지 않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거대 여당의 무성의와 무소신은 더욱 큰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5개의 사항 중 1~2개는 여야간 절충이 가능한데도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야당에 서거 정국을 이용하느라 국민은 인중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8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열린 미디어법 관련 한나라당 규탄 집회에서 민주당 박주선, 송영길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 방문 정세균 "DY 복당 지금은 때 아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8일 '덧밭'인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소속 정동영(DY)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의 전주행은 4·29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특히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정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당 일각에선 정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와 정 의원 무소속 당선 과정에

서 동요한 호남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과 무관치 않으나 분석도 제가됐다.

정 대표는 이날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전주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따질 것은 따질 것"이라고 운을 폈다.

그러나 "(정 의원의) 당선이 모든 것이 아니며 당선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던 일로 되지 않는다"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뒤 "다시

공천을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민주당의 후퇴와 MB 악법 저지가 절체절명의 과제"며 "당 운영이라는 것은 당헌, 당규라는 원칙 및 절차와 타이밍이 잘 조화돼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미뤄두는 게 좋다"고 조기복당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지금 그러저런 일로 티격태격하고 힘을 낭비한다면

국민이 너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고도했다.

정 대표는 재보선 당시 정 의원을 도왔던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작업에 대해서도 "모든 조직에는 질서와 룰이 있으며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공당"이라며 "징계가 필요하면 당연한 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복당 문제는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정 대표 발언에 대해 "당에 누를 끼치거나 분란을 불러일으킬 생각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개헌론' 정치권 새 불씨되나

김형오 의장 등 주장... 與서 급부상 친박·민주당 "국면 전환용" 반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언급한 '근원적 처방'과 관련,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한 축인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는 개헌론의 배경에 대해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데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 "비례대표의 경우 원래 뽑았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만큼 개헌시 정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비례대표 숫자만큼 상원을 두는 게 어떨까"면서 '상·하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각 정당에서 대권을 꿈꾸는 후보군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은) 금년말에 시작해 내년 초에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 강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대북 문제만 다루고 내치(內治)는 총선을 통한 제1당이냐 과반수 정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또 선거구제와 지방자치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정치의 안정을 이루려면 권력의 공동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개헌론이 급부상하자 친박 연대 측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에서 국정쇄신책을 명분으로 전체적인 관을 흔들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것

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 다문화 포럼'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론과 관련, "이미 다 얘기했다"며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 미국 방문때 '4년 중임제' 개헌에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는 현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민주당도 여권에서 제기하는 개헌론에 대해서 국면전환용이라며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당장 이 대통령이 국정쇄신책으로 개헌론을 정치권에 던질 경우,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결집된 민심은 물론 미디어 관련법 등 6월 국회 이슈가 모두 사그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 측에서는 여권이 개헌 논의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DJ, 이대통령 독재자라 표현 안했다"

민주당 박지원(목포)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독재'라는 표현으로 현 정권을 비판한 것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제1기 지방자치아카데미' 특강에서 "김 전 대통령이 6·15 기념행사에서 현 정부에 쓴소리를 한 것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식을 과소평가하지 말

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 폐기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5자회담 재안론'에 대해서도 "미국도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때에 핵을 포기해야 할 당사자인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의 중소기업들은 현재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다"며 "통일부가 남북경제협력자금 지원을 논의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원주 시정 홍보지 '李대통령 욕설 만화 물의'

강원도 원주시가 발행하는 시정 홍보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의 이 만화가 들어간 만화가 실려 물의를 빚고 있다.

원주시는 이날 1일자로 발행된 시정 홍보지 '행복 원주' 12면 시사만화에 '이명박 XXX' 식의 욕설이 눈에 띄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이 만화를 그린 최모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동

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의 이 만화는 호국영령의 위패 앞에서 묵념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위패가 놓인 제단의 문양에 문제의 욕설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욕설을 담은 문양 형태의 문자는 제단을 가로질러 쓰인 데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도 바뀌어 있어 세심히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문양으로 인식되기 쉽다. (사진) /연합뉴스

초·중학교 영어수업도 화상영어로 합니다!

원어민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 합니다

- 2012년 교과부 한국형 TOEFL 말하기 고득점을 위해
- 광주유니버시티 외국인 맞이기를 위해
- 여수 해양 EXPO 외국인 관광객 맞이기를 위해

〈강의형태 1:1, 1:2, 10:20, 20:40〉

www.gamall.com

2010년 합격을 대비한 여름방학 대특강!!

7급 공무원 **수강료**

30 40 **노박이 합격특별반모집**

향후 5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개강 7월 1일 (주야 집중 반모집) (현재 상담예약 접수중)

수강료 보조금 수혜안내

- 시합일: (목)9급, (매) 4월 / 7급, 7월 시험
- 시합일: (목)9급, (매) 5월 / 7급, 9월 시험
- ※ 시술 7.9급 행정직 7월 시험
- 재용인원: 17급(국)14명, 4명, (지방)4-5명
- 대한민국 공시합격의 선구자 無등!!
- 수강료 2개월, 0원반 3개월 완성

※여름방학 이벤트: 종합반 2개월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교재 5권 무료 증정 (가액 185,000원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부대시설: 영어실, 컴퓨터실, 수험실, 인터넷실, 자습실, 생활용품점, 편의점, 커피점, 24시간 운영

광주 동부서점 (중앙초교 후문) ☎ 222-4560

전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 경찰

남·여 순경 공채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영섭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광주지역 사제형, 오정수 합격

6개월과정	1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 완성 3회 빈독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25%/D/C, 교재 15%/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 완성 6회 빈독 학습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50%/D/C, 교재 15%/D/C

주저하지 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합격배출 1위 교수진	경찰학 오만	수사 차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장 영어 70% 합격자 목격 파악 없지 않음 강의경력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경민 경찰학 기본 직강 남부 경찰학원 전임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경력 22년 광주 순천 메인 전임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영어 미일합

- 경찰 영어 70% 합격자
- 목격 파악 없지 않음
- 강의경력 15년

행형 허문표

- FIRST 라인 형법 직강
- 노란진 한국경찰 전임
- 광주 메가 학원 전임

형소법 김현중

- 사시 1차 3회 합격
- 신용동 법원 검찰수감대상 10년 3년
- 형소법출세경험이 풍부하고있다.

경찰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전남여고 후문 ☎ 226-5050

Canon 호남총판

OPEN 기념 특가판매

이제 전문매장에서 캐논 정품을 판매하세요!

Full HD EOS 500D DSLR

사진으로 소유할 것인가? 영상으로 소유할 것인가?

Full HD 고화질 동영상 촬영

- 1510만 화소 CMOS센서
- Digic4 이미지 프로세서
- ISO 3200 고감도 촬영 지원(확장성 12800 지원)
- 3인치 92만도트 대형 클리어뷰 LCD(3중 구조 반사방지 기능)
- 편리한 촬영을 위한 라이브뷰 기능(얼굴 자동 인식)
- 크리에이티브 전자도 촬영 모드 및 픽 설정 지원
- 렌즈 주변 조도 보정 기능
-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Full HD EOS 500D 출시 기념 이벤트

2009년 6월 20일까지 EOS 500D를 구매하시고 정품 등록하시는 모든 고객께는 EOS A10 160G 외장하드를 선물을 드립니다.

- 기간: 2009년 5월 1일 - 2009년 6월 20일(행사 전 구매고객도 해당)
- 참여방법: 행사 기간동안 EOS 500D 제품을 구매하신 후 정품등록 신청을 통하여 응모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anon-ci.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0621350-8397**

(주)HD코리아 광주시 서구 금호월드 1층 정문입구